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김기리* · 이선정** · 신호식***

광주 무등중학교*·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Effects of Internet-Addiction on Adolescents' Family Communication

Kim, Kee-Ree* · Lee, Seon-Jeong** · Shin, Hyo-Shick***

*Gwangju Mudung Middle School**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in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the 394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d, Cronbach's α , T-test, one way ANOVA, Duncan'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WIN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choolboys internet addiction were higher than schoolgirls. Open communication was higher than median but problem communication was slightly lower than median.
2. Th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parent's absence frequency, the level of living, parent's attitude about internet, the motive, the purpose, and the times required for internet.
3. Family communica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
4. Open communication was influenced by the level of living, parent's attitude about internet, the times required for internet and the level of internet-addiction and was explained about 19% by these variables. Problem communication was influenced by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level of living and was explained about 14% by these variables.

1) 교신처: Shin, Hyo-shic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1 Fax: 062-530-2529 E-mail: hsshin@chonnam.ac.kr

Key Words: 인터넷 중독(Internet-Addiction), 가족 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개방형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 문제형 의사소통(Problem Communi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에 있어 급격한 변화와 다양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들에게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비행이나 기타 다양한 문제행동의 출현을 야기시키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 중 1990년대 후반이후 급격하게 확산되어 이제는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 버린 인터넷 환경은 편리한 만큼이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의 사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대인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재미를 주기 때문에 계층을 막론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약 1,600만 가구의 대다수인 89%의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보급률의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eMarketer, 2007. 2. 13).

한국인터넷진흥원(2007)이 실시한 '2007년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하면 2007년 6월 현재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5.5%이며 그 중 6~19세의 98.7%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확대 보급은 청소년에게 자율적인 학습 능력 향상, 자신의 취미나 흥미 발전, 여가 시간의 건전한 활용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는 반면 부모들의 적절한 지도나 감독이 부족한 경우 인터넷이 제공하는 온갖 유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도 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경우에

는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들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최영래, 2003). 더군다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빈약한 여가 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 더욱 매료되게 된다.

이처럼 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와 지식 축적의 수단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좋은 교육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컴퓨터 게임에의 몰두, 음란물 접촉,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의 역기능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어 자칫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송명준, 2001).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을 병리적, 강박적으로 하는 행동 패턴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길다거나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에 명명한다(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이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전체 대상자의 9.2%가 인터넷 중독 혹은 과다사용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14%가 중독 위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의 소홀로 이어져 성적 저하는 물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가 많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학교 성적이 저하되는 등 학교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김정숙, 2004; 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교현, 2001; 이소영·권정혜, 2001; 이수진·박중규, 2004; 장재홍, 2004). 또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 대한 혼돈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사용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여러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국민일보, 2006. 9. 19; 뉴스메이커, 2008. 1. 29). 이렇듯 잘못된 인터넷 사용이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고민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동안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보거나(박미자, 2005; 임정훈, 2003, 조재준, 2005)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요인, 인터넷 사용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김혜원, 2001; 류진아, 2004; 송미화, 2001; 안영숙, 2005, 정혜경·김경희, 2004; 최영래, 2003; 한미영, 2006)로, 대부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의사소통 등 가족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깊이 연관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한미영(2006)은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인터넷 통제력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경신·김진희(2003)는 부모자녀 관계 변인과의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효율성과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안석(2000)은 부모의 지지와 인터넷 중독을, 문은숙(2007), 조춘범(200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을 분석하였으며 류진아(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2000)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치중하여,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실시된 연구(안복모, 2003; 이명숙, 2005)도 그 동안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의 양에 비

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 양식의 형성 과정에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에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거나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제한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된다(안세라, 2003). 청소년의 인성발달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산물로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영역이다(Rueter & Conger,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 사용이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가정 내 공부에 지장을 주며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하여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가족 의사소통에 차이를 보인다는 이명숙(200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족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의 유발 요인이 아닌 인터넷 중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족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김정화, 2002; 안상미, 2006; 정지연, 2007)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원만한 가족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우울과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감소시키므로 현재 청소년기의 주요한 병리 현상 중 하나인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대표적인 가족관련 변인으로 가족 의사소통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리라 본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필수화되고 있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단순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재만을 가할 것이 아니라 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관련 요인으로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발달적 특성상 갈등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인격 형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인터넷 중독 정도 및 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가족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인터넷 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의 차이는 어떠한가?
- 4)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중독(addiction)은 물질의 신체 생리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성과 금단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내성이란 즐거움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던 물질의 양을 늘려야 함을 의미하며 금단증상이란 물질의 사용을 중단했을 때 불쾌감, 기분의 저조, 괴로움 등을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상태를 말한다(이시형 · 이

세용 · 김은정 · 오승근, 2000). 중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물질사용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최근 들어 중독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유형도 다양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Griffiths(1996)는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도박, 과식,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독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 초조감과 같은 정서적 금단현상과 내성으로 인해 더욱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어 학업 소홀과 같은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갖는 것을 말한다(Young, 1999).

Goldberg(1996)는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일컬어 ‘인터넷 중독장애(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하였고 Young(1996)은 인터넷이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처럼 중독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1)에서는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을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홍경희(2002)는 기존의 병리적 사용 개념과 구분된 인터넷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과다사용이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터넷 이용시간 통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접속에 대해 강박적 집착과 조절 불능,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접속하는 강박적 사용,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자각 및 주위의 염려 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청소년에게 인터넷의 보급과 온라인 대인관계는 일상생활이자 문화가 되었다. 과거에는 여가시간에 TV를 시청하였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친구와의 대화도 e-mail이나 메시지를 활용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계

임을 통하여 만남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류진아, 2004). 그러나 지나친 사용과 몰입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며 청소년의 학업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새로운 이용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화나 기술 분야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가 전국의 초, 중, 고교 학생 1,10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8.8%가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되었고, 그 중에 심각한 중독은 0.2%이었으며 남학생(10.2%)의 중독 비율이 여학생(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교현(2001)의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의 24%가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나타났고 남학생(33%)의 중독 비율이 여학생(1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에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은 각각 4.3%, 16.0%로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청소년의 14%가 중독의 위험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는 고위험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4년에 비해 약간 감소된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보다 중독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터넷 중독의 관련 변인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김혜원, 2001; 안정임·김동규, 2000; 염영란, 2007; 윤영민, 2000), 조정민(2005)의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중독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김혜원, 2001; 이숙·남윤주, 2004). 김혜원(2001)과 윤영민(2000)은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수록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와 함께 이용 목

적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는데 인터넷의 용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인터넷 사용 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여러 연구들에서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하는 경우 중독 성향이 낮았음을 보여주며(윤영민, 2000; 이숙·남윤주, 2004; 조준범, 2001), 조정민(2005)의 연구에서는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의 중독성향이 높고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인터넷 중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나(권재환, 2005; 이혜진, 2002)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통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인터넷 중독 성향이 더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김혜원, 2001;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조준범, 2001; 최영래, 2003; 한미영, 2006). 류진아(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 동기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타의 동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낮다고 하였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

현대 사회의 가족은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과 위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핵가족화와 가정 해체는 청소년들에게 관계와 친밀감 및 소속감의 측면에서 막대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주고 있으며, 적합한 문화 공간 및 문화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의 정보 제공을 포함한 많은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강화인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에 대한 몰입 가능성을 높인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증가하고(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하연미, 2003),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집단이 폐

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집단보다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다 (정경란, 2002)고 하였다.

그러나 Kraut 등(1998)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의 이용이 많을수록 가족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고 사회적인 참여정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 사용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가정에서의 학습에도 지장을 주어 부모-자녀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서로에 대한 고조된 불신감으로 인해 가족 간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이명숙, 2005).

고영삼과 엄나래(2007)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내담자의 상담자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음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김교현(2001), 장재홍(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가족과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영희(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고, 이명숙(2005)은 인터넷 중독 상위집단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화(2002), 염영란(2007)

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가족 의사소통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비위험군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가정 내 부모와의 갈등적인 관계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터넷에 몰입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개방형 의사소통 대신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며,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부 중학교 3개교의 1, 2, 3학년 학생 42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94)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	140(35.53)	부직업	회사원	103(26.96)	
	여	254(64.47)		공무원	39(10.21)	
연령	13세	77(19.54)		자영업	99(25.92)	
	14세	179(45.43)		전문직	17(4.45)	
	15세	38(9.65)		무직	2(.52)	
	16세	100(25.38)		생산/기술직	57(14.92)	
생활수준	상	48(12.31)		기타	65(17.02)	
	중상	98(25.13)		모직업	회사원	39(10.03)
	중	203(52.05)			공무원	11(2.83)
	중하	36(9.23)			자영업	80(20.57)
	하	5(1.28)	전문직		14(3.60)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의 빈도	거의 없다.	202(51.53)	가사/주부		196(50.39)	
	일주일에 1~3일	63(16.07)	생산/기술직	9(2.31)		
	일주일에 4~6일	63(16.07)	기타	40(10.28)		
	거의 매일	64(16.33)				

에 앞서 2006년 6월 9일 W중학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20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실기재 된 설문지를 제외한 394부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학생이 64.47%, 남학생이 35.5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3세가 19.54%, 14세가 45.43%, 15세가 9.65%, 16세가 25.38%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26.96%, 자영업이 25.92%, 기타가 17.02%, 공무원이 10.21%, 생산직·기술직이 14.92%, 전문직이 4.45%, 무직이 0.52%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0.3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이 52.05%로 가장 많았고 중상, 상, 중하, 하 순으로 각각 25.13%, 12.31%, 9.23%, 1.28%를 나타냈다. 방과 후나 주말에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날의 빈도는 거의 없다가 가장 많은 51.53%를 차지하였고 일주일에 1~3일이 16.07%, 일주일에 4~6일이 16.07%, 거의 매일이 16.33%이었다.

2. 조사 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부직업, 모직업, 생활수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날의 빈도로 구성하였다. 모두 단일문항으로 연령은 13세, 14세, 15세, 16세로 구분하였고 부모의 직업은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 무직, 생산/기술직,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만 파악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분석에서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으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날의 빈도는 거의 없다, 일주일에 1~3일, 일주일에 4~6일,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2)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인터넷 1회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 동기, 인터넷 용도로 구성하였다. 모두 단일문항으로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를 한다, 엄격하게 제한한다,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지도한다로 나누었고 인터넷 1회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부터 1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3시간 이상까지 4단계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이용 동기는 재미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로 나누었으며 인터넷의 용도는 게임, 채팅, 메일, 사이버쇼핑, 동영상감상, 자료검색, 음란물, 기타로 나누어 조사한 후 분석에서는 게임, 채팅, 메일/자료검색, 기타(사이버쇼핑, 동영상감상, 음란물, 기타)로 분류하였다.

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Young(1999)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인터넷 의존성, 내성, 심리적·신체적 금단증상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 범위는 20~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중독 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같은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 간에도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Young(1999)의 분류에 따라 척도의 응답값이 20~49점까지인 응답자는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자, 50~79점까지는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인터넷 초기 중독자로, 80~100점까지는 인터넷 사용이 생활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집단으로 분류하여, 20~49점까지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자를 인터넷 비중독군으로, 50~79점까지의 초기중독자와 80~100점까지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는 인터넷 중독군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전반적인 경향

N(%)		
성별	비중독군	중독군
남학생	69(49.29)	71(50.71)
여학생	177(69.69)	77(30.31)

4) 가족 의사소통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가운데 청소년용 문항(Adolescent Form)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에 관한 10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86, 문제형 의사소통이 .6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터넷 중독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 인터넷 중독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다중 회귀분석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터넷 중독, 가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

1) 인터넷 중독의 전반적인 경향

인터넷 중독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인터넷 중독군이 남학생의 경우는 50.71%, 여학생의 경우는 30.31%로 나타나 이미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선행 연구(김교현,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가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

가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3>과 같다. 가족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중간값(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나 문제형 의사소통은 중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비교적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가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

구분		M	SD
가족 의사소통	개방형 의사소통	3.46	.81
	문제형 의사소통	2.94	.70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

변인	구분	인터넷 중독성		
		N	M(SD)	D
성별	남	140	2.50(.61)	
	여	254	2.18(.63)	
	t		4.88***	
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의 빈도	거의 없다	202	2.20(.68)	b
	주 1~3일	63	2.26(.61)	b
	주 4~6일	63	2.50(.56)	a
	거의 매일	64	2.39(.57)	ab
	F		4.06**	
생활수준	상	146	2.19(.65)	b
	중	203	2.32(.89)	b
	하	41	2.56(.78)	a
	F		5.71**	

D: Duncan's Test, **p<.01, ***p<.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은 <표 4>와 같이 성별, 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의 빈도,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의 빈도가 많은 경우에 인터넷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제어능력이 부족하고, 게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생활지도 결여나 방치로 인한 자녀의 일탈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노력하여 자녀가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인터넷 중독성이 높았는데, 이는 생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생활고로 인해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이라는 매체와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노력하여 자녀가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인터넷 중독성이 높았는데, 이는 생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생활고로 인해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는 <표 5>와 같이 인터넷 이용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인터넷 1회 이용시간, 인

<표 5>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

변인	구분	N	M(SD)	D
인터넷 이용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62	2.24(.59)	ab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를 한다	204	2.34(.62)	a
	엄격하게 제한한다	54	2.45(.67)	a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지도한다	65	2.06(.70)	b
	F		4.64**	

<표 계속>

변인	구분	N	M(SD)	D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29	2.22(.60)	ab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를 한다	268	2.36(.62)	a
	엄격하게 제한한다	39	2.42(.66)	a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지도한다	56	1.90(.65)	b
	F		9.27**	
인터넷 1회 이용시간	1시간 미만	126	2.01(.58)	c
	1시간~2시간 미만	142	2.22(.61)	b
	2시간~3시간 미만	85	2.63(.54)	a
	3시간 이상	40	2.71(.60)	a
	F		26.75**	
인터넷 이용 동기	재미있어서	175	2.31(.63)	ab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60	2.04(.63)	c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47	2.25(.60)	bc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82	2.53(.66)	a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8	2.06(.58)	b
	F		6.58***	
인터넷 용도	게임	153	2.43(.63)	a
	채팅	91	2.28(.63)	a
	메일, 자료검색	72	2.03(.61)	b
	기타(사이버쇼핑, 동영상, 음란물)	78	2.07(.64)	a
	F		6.69***	

D: Duncan's Test, **p<.01, ***p<.001

넷을 하는 동기, 인터넷 용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 및 어머니가 인터넷 이용에 대해 바람직한 지도를 하는 경우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오히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중원(2002), 이정연·최영선(2002), 조준범(2001)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님의 엄격한 지도에 대해 자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부모의 엄격함에 대한 반항심에 오히려 인터넷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으로는 이미 중독 수준이 높아져서 이에 대해 부모가 엄격한 제한을 하게 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 1회 이용 시간에 따라서는 이용시간이 1시간미만으로 적은 경우에 인터넷 중독정도가 낮게 나타나 인터넷의 특성상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이러한 몰입이 중독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

도와 규칙이 필요하리라 본다. 인터넷을 하는 동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주로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성이 높은 반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응답자는 낮았다. 또한 인터넷을 메일이나 자료검색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성이 낮게 나타나 청소년이 분명한 목적과 동기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의 차이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은 <표 6>과 같이 인터넷 중독군과 비중독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중독군이 부모님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표 6>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의 차이

인터넷 중독	가족 의사소통	N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M	SD	M	SD
인터넷 중독	비중독군	246	3.50	.85	2.79	.69
	중독군	148	3.28	.75	3.15	.61
	t		2.69**		-5.35***	

p<.01, *p<.001

많이 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 여부가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가족 의사소통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 인터넷 중독, 가족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회 인구학적 변인	1.성별																			
	2.부모의 외출 빈도	.01																		
	3.생활수준	.02	-.09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	4.부의 태도 (fatti-D1)	.12*	.12*	-.01																
	5.부의 태도 (fatti-D2)	-.02	.03	-.03	-.45***															
	6.부의 태도 (fatti-D3)	-.15**	-.01	-.04	-.17***	-.41***														
	7.모의 태도 (matti-D1)	.07	.05	-.02	.28***	-.12*	-.08													
	8.모의 태도 (matti-D2)	-.04	.02	-.05	-.03	.17***	-.01	-.41***												
	9.모의 태도 (matti-D3)	-.07	.01	-.01	-.12*	.05	.19**	-.09	-.48***											
	10.이용시간	-.16**	.17***	-.06	-.06	.15**	.00	-.01	.13*	.01										
	11.이용동기 (moti-D1)	.00	.07	-.06	.04	.00	.05	-.06	.15**	-.04	.11*									
	12.이용동기 (moti-D2)	.02	-.05	-.01	-.03	.06	-.13*	.10	-.12*	-.02	-.10*	-.38***								
	13.이용동기 (moti-D3)	-.02	.03	.14**	-.03	-.07	.08	.12*	-.03	-.02	-.01	-.06	-.03							
	14.이용동기 (moti-D4)	.14**	-.03	.06	.06	-.07	-.03	.05	-.03	-.02	-.07	-.33***	-.16**	-.03						
	15.용도 (pur-D1)	-.57***	.01	-.03	-.07	-.02	.18***	-.09	.06	.09	.15**	.07	-.19***	.02	-.13**					
	16.용도 (pur-D2)	.29***	.02	.02	.03	-.03	-.03	.01	.05	.00	-.02	-.02	-.18***	-.04	.32***	-.44***				
	17.용도 (pur-D3)	.10***	.06	.01	.05	-.01	.02	.01	.03	-.06	.01	.08	-.03	-.01	-.02	-.14**	-.10			

<표 계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8.인터넷 중독		-.25*	.14**	-.18***	-.04	.08	.10*	-.04	.16***	.07	.33***	.03	-.17***	.03	-.02	.18***	-.02	.02		
가족 의사소통	19.개방형 의사소통	.06	-.08	.31***	-.19***	-.04	-.00	-.16**	.02	-.08	-.16**	-.02	.07	.07	-.02	-.08	.02	.04	-.22***	
	20.문제형 의사소통	-.01	.12*	-.19***	.06	.05	.08	.02	.05	.10*	.13**	.02	.01	-.06	-.03	.03	-.01	-.04	.33***	-.37***

*p< .05, **p< .01, ***p< .001

Dummy variables:

- 성별(여학생-1, 남학생-0)
-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의 태도(fatti-D1: 무관심-1, 그 외-0 / fatti-D2: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1, 그 외-0 / fatti-D3: 엄격한 제한-1, 그 외-0)
- 인터넷 이용에 대한 모의 태도(matti-D1: 무관심-1, 그 외-0 / matti-D2: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1, 그 외-0 / matti-D3: 엄격한 제한-1, 그 외-0)
- 인터넷 이용 동기(moti-D1: 재미-1, 그 외-0 / moti-D2: 정보습득-1, 그 외-0 / moti-D3: 친구사귀기-1, 그 외-0 / moti-D4: 친구와 대화-1, 그 외-0)
- 인터넷 용도(pur-D1:게임-1, 그 외-0 / pur-D2:채팅-1, 그 외-0 / pur-D3:메일, 자료검색-1, 그 외-0)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는 1점 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각각 1.92과 1.85로 2에 가까워 잔차간 자기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먼저 개방형 의사소통에는 생활수준($\beta=.277, p<.001$),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태도(fatti-D1)($\beta=-.170, p<.001$), 인터넷 중독 정도($\beta=-.140, p<.01$), 인터넷 1회 이용시간($\beta=-.114, p<.05$), 인터넷 이용에 대한 모태도(matti-D1)($\beta=-.109, p<.05$)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

은 개방형 의사소통을 19% 설명해주고 있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1회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에는 인터넷 중독 정도($\beta=.290, p<.001$), 생활수준($\beta=-.127, p<.01$)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문제형 의사소통을 14% 설명해주고 있다. 즉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개방형 의사소통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생활수준	.261	.277***	1.036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태도(fatti-D1)	-.379	-.170***	1.088
	인터넷 이용에 대한 모태도(matti-D1)	-.339	-.109*	1.086
	인터넷 1회 이용시간	-.077	-.114*	1.130
인터넷 중독성		-.178	-.140**	1.164
F		17.60***		
R ²		.19		
DW		1.92		

*p<.05, **p<.01, ***p<.001

<표 9>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문제형 의사소통		
		B	β	VIF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생활수준	-.102	-.127**	1.043
	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의 빈도	.043	.077	1.040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	인터넷 이용에 대한 모태도(matti-D3)	.174	.075	1.005
	인터넷 1회 이용시간	.012	.020	1.150
인터넷 중독성		.313	.290***	1.172
F		12.62***		
R ²		.14		
DW		1.85		

p<.01,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인터넷 사용 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와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의 차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교육과 지도 및 청소년기 가족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향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은 50.71%로 여학생의 30.31%보다 높게 나타나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가족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형 의사소통은 중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의 빈도가 많은 집단,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인터넷 중독성을 나타냈다.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은 부모가 인터넷 이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에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지도하는 경우, 인터넷 이용 동기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인 경우, 인터넷을 메일이나 자료검색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았고, 인터넷을 한번 접속하면 오랫동안 인터넷을 이용

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인터넷 사용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셋째, 인터넷 비중독군은 중독군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중독군의 경우 비중독군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은 가족 내 의사소통과 연관됨을 보여준다.

넷째, 가족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수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 인터넷 1회 이용시간, 인터넷 중독 정도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이 낮을수록, 인터넷 1회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에는 인터넷 중독 정도와 생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집을 비우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집에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와 시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정서적 고립감에서 탈출하는 통로로 인터넷에 빠져

들며, 심하면 중독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특징인 기성세대 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하여 부모가 억압적으로 인터넷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더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 들이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난 류진아 (2004)의 연구와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남영옥(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자녀가 잘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나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의 인터넷 사용 지도와 관련하여 부모들에게 함의를 준다.

또한 목적이나 동기가 불분명하고 단순히 흥미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은 그 활용에 있어서 무한대 이며 또한 양면성을 지닌다. 즉 음란물과의 접촉, 게임이나 오락 활동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시 목적이나 동기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자아제어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변 성인들의 적절한 도움이 요구된다. 이시형 등(2000)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수록 청소년들이 학습 도구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여 부모의 관여가 중요함을 시사한 바가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하며 인터넷 사용 습관과 문화에 대해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해와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부모교육과 의사소통 기술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현장에서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유익한 정보 활용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사용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과 문화, 예절 등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오락이나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환경을 조성

하고 동시에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의 제공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앞서 인터넷 중독성에서는 부모가 잔소리를 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더 높아졌으나 가족 의사소통에는 이와 상반되게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관심보다 아버지의 관심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간 관계 촉진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이로 인해 가족 간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족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제형 의사소통에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인터넷 상에서 획득한 의사소통 기술이 실제 의사소통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증가할수록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 인간미를 느끼는 정상적인 관계는 형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족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을 이끄는 기반이 되므로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으로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늘리려는 노력과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이해와 관심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광주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일부 학생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일치도, 지각의 차이점을 통해 세대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과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경험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영삼·엄나래(2007). **청소년 인터넷중독 특성 분석: KADO 내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민일보(2006. 9. 19). **인터넷, 심하면 등교거부 등 ‘방콕’ 약도 없다.**

권재환(2005).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 중독간 관계: 대인관계 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김진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15-25.

김교현(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와 컴퓨터 중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8, 41-62.

김정숙(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화(2002).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원(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과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 연구**, 8(2), 118-125.

남영옥(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뉴스메이커(2008. 1. 29). **‘인터넷’ 중독은 여전히 진화 중.**

류진아(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은숙(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자(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 영광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희(200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대인관계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명준(2001). **인터넷 중독자의 온라인 및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미화(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복모(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 및 가정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상미(2006).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세라(2003).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인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영숙(2005). **가족기능과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정임·김동규(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 중후근 및 음란물 접촉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엄영란(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영민(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사회**, 2, 133-153.

이명숙(2005).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학교 적응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권정혜(2001).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67-80.

이수진·박종규(2004). **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 실태와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홍세희·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장기추적조사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숙·남윤주(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42(3), 1-16.
-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정연·최영선(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35-346.
- 이혜진(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훈(2003). 인천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2, 479-518.
- 장재홍(2004).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치료**, 15(4), 651-673.
- 정경란(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연(2007). **부자가정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김경희(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4), 406-412.
- 조재준(2005). 인터넷 중독의 실태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2(1), 185-215.
- 조정민(2005).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준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영래(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연미(2003).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친구지지 및 충동성이 인터넷 관련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2007년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1).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실태조사**. _____(2004). **200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_____(2006). **2006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미영(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희(2002).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eMarketer(2007). Looking around the whole online world. eMaketer 2007. 2. 13.
- Goldberg, I. K.(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http://willow.uml.edu/www/counseling/netdisorder.htm>.
- Griffiths, M.(1996). Behavioral addictions: and issue for everybody?. *The Journal of Workplace Learning*, 8(3), 19-25.
- Rueter, M, A. & Conger, R. D.(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1), 98.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9.
- Young, K. S.(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인터넷 사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의 차이와 인터넷 중독성에 따른 가족 의사소통의 차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 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은 50.71%로 여학생의 30.31%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족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형 의사소통은 중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가 집을 비우는 날의 빈도가 많은 집단이,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고, 부모가 인터넷의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지도를 해 주는 경우, 인터넷 이용 동기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인 경우, 인터넷을 메일이나 자료검색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았고, 한번 접속하면 오랫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다.

셋째, 인터넷 비중독군은 중독군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터넷 중독군의 경우 비중독군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경우,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1회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많이 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10월 9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24일